

문화

■여수박람회 해양문화체험 프로그램 다채

바다, 보고 듣고 만지고...

이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여수세계박람회는 그런 곳이다. 사전 정보 없이 무작정 찾는 것 보다, 볼거리, 즐길거리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가야 알차게 행거볼 수 있다. 특히 자녀를 동반한 부모들이라면 전시관 줄 서다 가는 것 보다, 박람회 기간 운영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행거 사전에 예약을 해놓는 게 좋다. 여수박람회조직위원회는 박람회 기간 초·중·고등학생 및 성인 관람객을 대상으로 바다와 해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다양한 해양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박람회 기간 내내 진행한다. 이른바 '해피아(Ocean+Utopia)' 프로그램으로, 대부분의 참가비가 '무료'인데다, 맞춤형 포럼과 체험형 워크숍 등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미리 인터넷(www.expo2012-happia.org)으로 사전등록하는 게 참가하는데 수월하다.

◇맞춤형 포럼 = 유아·초등학생이라면 신기한 바다 생물 탐구와 심해 생태계의 이해를 돕는 3D 입체퍼즐 만들기 체험 행사인 '바다는 보물창고'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6월 1일~3일까지 하루 한 차례 2시간동안 진행된다. 초등학교 1~3학년과 부모 등 500명이 참가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 '살아있는 심해탐구' 프로그램은 초등 4~6학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망간 단과 발견의 주역인 박정기 박사의 강연과 입체퍼즐·체험 등을 통해 심해 탐사의 첨단기술 우수성 및 해양 역사를 접할 수 있다. 7월 3일~5일까지 매일 2시간씩 3일간 운영한다.

- 심해 생태계 3D 퍼즐 만들기
- 박사님이 들려주는 해양 역사
- 중고생 유명 문화예술인과 만남
- 기간 내내 운영...대부분 무료

'신나는 바다놀이터' 프로그램의 경우 어린이 안전 애니메이션 캐릭터 '우당탕탕 아이쿠'와 함께하는 수상안전 뮤지컬(40분), 컨퍼런스홀에서 7월 28일~8월 3일까지 1주일간 하루 두차례 공연한다. 캐릭터와 의 포토타임도 있어 유아를 둔 부모들이라면 꼭 챙겨야 한다.

◇중·고등학생, 유명 문화예술인 만남 기회도 = 박람회 기간 중에는 김훈 작가와 '소나무 작가'배병우, 엄홍길 등 유명인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적지 않다. 김 훈 작가는 6월 1일 컨퍼런스홀에서 청소년 500명에게 바다와 문학, 국내 여행을 중심으로 '가장 인상적 남았던 바다 이야기'를 들려준다. 팝스타 엘튼 존이 그의 작품을 구입하면서 '소나무 작가'로도 유명한 여수 출신 중견 사진작가 배병우씨를 만날 수도 있다. 그는 7월 16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바다사진 소개하면서 관련된 사진 기술과 에피소드를 풀어낸다. 7월 23일에는 산악인 엄홍길씨가 기후변화로 인한 한반도 수중생태계의 변화상을 촬영한 3D 영상을 관람하고 촬영 에피소드를 전하고 사진 회도 갖는다. 한국의 '스티븐 호킹'으로 불리는 이상목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6월 9일 고등학생·대학생 참가자 500명에게 '바다 속의 지진과 화산'에 대해 강연하

■여수세계박람회 해양문화체험 프로그램

◆ 6월	
1일	김훈 작가의 인문학 카페
1~3일	바다는 보물창고
2일	해양스쿨 - 바다악기 체험
5일	생물다양성 포럼
9일	이상목 교수의 바다 속 지진과 화산
9~10일	해양스쿨 - 바다악기 체험
16~17일	해양스쿨 - 여수박람회 골든벨을 잡아라!
19일	20대, 푸른 바다를 경영하라
21~22일	시그널트 국제포럼
23~24일	해양스쿨 - 여수박람회 골든벨을 잡아라!
26일	해양산업 비즈니스포럼
27일	해양환경그리공단 이사장 초청공연
27일	해양생태포럼
28일	바다사랑 사생대회
30~7월 1일	해양스쿨 - 바다악기 체험
◆ 7월	
3~5일	살아있는 심해탐구
7일	나의 여수박람회 답사기(해양백일장)
13~14일	해양스쿨 - 여수박람회 골든벨을 잡아라!
16일	배병우 작가의 아름다운 바다이야기
20일	한국환경영화회 국제포럼
21일	바다사랑 사생대회
23일	3D해양다큐 '엄홍길 바다로 가자'
28~8월 3일	신나는 바다놀이터(우당탕탕 아이쿠 뮤지컬)
◆ 8월	
2~4일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12일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네스코 청년포럼

고 6월 19일에는 국내 굴지의 해운회사 대표가 나서 '재용 인재상과 경영철학'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8월 12일 국내외 청소년들이 참여해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2012 유네스코 청년 포럼'도 경향을 쌓을 기회다. ◇체험형 워크숍 진행 시기 알아둬야 = '여수박람회 골든벨을 울려라' 프로그램과 '바다악기 체험'행사는 퀴즈와 게임을 통해 바다와 연안에 대한 지식도 얻을 수 있고 조개껍데기, 바다자갈, 코코넛열매껍질 등으로 오션마리카스를 만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골든벨 프로그램은 6월(16·17·23·24), 7월(13·14일) 진행하고 바다악기 체험 프로그램은 6월(2·3·9·10·16·17·23·24·30), 7월 1일에 진행되며 매일 3회씩 300명을 선착순 모집해 진행한다. 바다사랑 사생대회는 6월 28일과 7월 1일, 백일장은 7월 7일 열린다. /김지음기자 dok2000@kwangju.co.kr

“피 끓는 청년들은 모여라”

청춘의 자격

내일부터 구도청서 문화 난장 '청춘의 자격'

'청춘들이여, 여기로 오라.' 아시아 문화마루 앞마당이 젊음의 물결로 뒤덮인다. 현재 한창 아시아문화전당 공사가 진행중인 옛 전남도청 앞에 자리한 문화마루에서 지역 대학 동아리들의 문화 난장 '청춘의 자격'이 시작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문화마루와 앞마당을 광주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어느 멋진 토요일' THE 멋진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12일부터 오는 7월14일까지 계속되는 '청춘의 자격'에는 전남대·조선대·광주대·호남대 등 지역 4개 대학 20개 동아리가 참여, 젊음을

발산한다. 12일 오후 7시에 열리는 첫번째 행사에는 호남대 동아리 밴드 '라이브 온(Live on)' '큐피드', 댄스팀 '디자이너(Desire)'가 무대에 오르며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인디밴드 '바닥프로젝트'와 고교 밴드 동아리 '뮤즈' 등도 공연을 펼친다. 오는 19일에는 조선대 '목신의 오후' 등 9개 밴드 동아리 연합 공연이 열리며 조선대 미술동아리

'바로크 80'의 전시회 등 다양한 볼거리가 함께 마련된다. 특히 19일에는 지난해 문화마루의 인기 행사였던 '야(夜), 버룩시장'도 함께 열린다. 지역 예술인들의 아트상품을 판매하고 서로 물품을 나누는 버룩시장에는 시민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어 25일에는 광주대 통기타 동아리 '오션지'의 공연이 열린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우리시대의 미술과 고민

시립미술관 16일까지 '신도원·편형규전'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본관은 10일부터 16일까지 '신도원·편형규 개인부스'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미디어와 퍼포먼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술 탐론을 형성해 가고 있는 신도원씨와 현대인의 '소외' 감정을 일러스트로 작업하는 편형규씨가 각각 개인 부스 형태로 전시를 기획해 관람객과 만난다. 다양한 형식의 현대 미술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신씨는 'ESQUISSE FOR VIDEOART - 하얀세상을 찾아서'라는 주제에 맞춰 비디오 아트 작품과 12점의 드로잉 작품을 선보이게 되며 편씨는 '숨바꼭질...'이라는 주제로 현대인의 '소외' 감정을 탐구한 30여점의 작품을 내놓는다. 화면에 무게감을 주려는 듯한 시도도 엿보인다. 문의 062-222-8053. /김지음기자 dok2000@kwangju.co.kr



편형규작 '달출'

현대음악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양상을 루미나시아' 내일 유·스퀘어문화관

지난해 결성된 '양상을 루미나시아'는 지역에서 좀처럼 만나기 힘든 현대음악 전문 연주단체다. 현대음악은 클래식 팬들도 쉽게 친해지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양상을 루미나시아는 올 첫 음악회를 좀 더 많은 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정의 달 특집 공연으로 꾸렸다. 12일 오후 3시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동화같은 음악 이야기'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현대음악은 어렵고 난해하다'는 편견을 깨는 현대곡들과 인기있는 고전 레퍼토리를 함께 만날 수 있다. 첫 무대는 피아졸라의 '행구의 봄'

이 장식하며 사람들에게 익숙한 생생한 '동물의 사육제'도 만날 수 있다. 또 재주꾼 재봉사의 무용담을 그린 하르스니의 '용감한 꼬마재봉사',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전남대 작곡가 교수인 정현수씨의 '청울림-이야기 짓기', 최원식의 '태양의 악사' 등도 만날 수 있다. '빛'을 의미하는 '루미나'와 아시아를 합쳐 만든 양상을 루미나시아에는 문헌옥·김연·한신미·양새미·주민혁·강희선·김정아·임요삼·김창현·채면석·도혜경씨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인 17명이 참여하고 있다. 문의 062-530-304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030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CJ그룹, 오늘 광주 CGV 터미널서 특강

CJ그룹(회장 이재현)이 11일 오후 6시30분 광주 CGV 터미널에서 '꿈지기 사절단' 네 번째 특별강연을 개최한다. 'CJ 꿈지기 사절단'은 인생 선배로서 진정성 있는 목소리로 드림 스토리를 들려주고 함께 소망하는 희망 멘토 강연 프로그램이다. 이번 강연에는 한국홍보 전문가인 서경덕(성신여대 교수)씨가 '세계를 향한 무한 도전'을 주제로 강연하며 아티스트 한젤마씨는 '남들처럼 No! 도전하는 나만의 나 Yes!'를 주제로 열정적인 도전을 거듭했던 자신의 스토리



서경덕



젤마

를 들려주고 2030세대의 꿈을 응원한다. 미술이라는 장르를 쉽게 느끼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던 그녀는 그동안의 열정과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공개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1년

www.geumsoojang.com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A코스 40,000원 / B코스 33,000원**
C코스 25,000원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외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식락

축적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정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Be natural
Be delicious**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 일 성인(중학생이상) :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유·스퀘어 U-square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유·스퀘어 사우나

24시간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피부샵(스파·마사지) 인터넷 · 안마기 · 이용원 · 세신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